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미를 따라 붙잡힌
 어린 게 한 마리

큰 게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계장수의 구력*을 빠져 나와
 옆으로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게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구력: 새끼를 드물게 떼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눈」-

1.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찰대상이 비현실적인 고난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 ② (나)는 시제가 나타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위 대상의 의지가 사그라들었음을 강조한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관찰대상의 행위를 부각한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명사로 시를 마무리하며 여운을 준다.
- ⑤ (가)와 (나) 모두 작가의 이상적 가치를 제시하여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2. ㉠에서 ㉤를 중심으로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무생물인 눈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에게 생명력을 부여한다.
- ② ㉡: 시인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하여 행위를 의욕하는 주체가 시인 자신임을 암시한다.
- ③ ㉢: 행위의 대상인 눈에 마음 놓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를 위로하는 화자의 세심한 마음을 드러낸다.
- ④ ㉣: 이전에 사용한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가 생각하는 눈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 ⑤ ㉤: 가래도 뱉어내야 할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래가 화자에게 비슷한 이미지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3. 다음은 (나)를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독후감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나)를 읽고 과거의 작품이지만 현대의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새도록’과 ‘기침’이라는 시어에 주목하여 (㉠)에게 추천합니다.

- ① 좋아하는 시의 추천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분들
- ② 오래도록 하지 못해 마음속에 응어리진 말을 할 용기를 얻고 싶은 분들
- ③ 씩스러운 맘에 사랑 고백을 계속 유보하신 분들
- ④ 타인을 위한 충고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 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

4. <보기>를 중심으로 (가)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린 계의 죽음」이 쓰인 1970년대 당시는 군사 정권에 맞서 자유를 갈망하던 문학인들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 시에서 김수영 시인은 관찰대상인 계에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자유를 향해 투쟁해야 한다는 시인의 가치관을 투영한다. 또한, 그를 죽음에 이르는 존재를 등장 시켜 군사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자유를 찾아다니는 계의 죽음을 부각함으로써 그는 자유를 향한 희생을 부각하기도 한다.

- ① 계장수의 구력을 빠져나와 옆으로 기어가는 계의 모습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② 썩어가는 계의 시체를 찬란한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의 죽음을 부각함으로써 반어적으로 계의 희생, 즉 자유를 향한 희생을 부각하는 것이겠군.
- ③ 자유를 찾아다니던 계가 군용 트럭에 깔려서 터져 죽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정권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겠군.
- ④ 단순한 계의 움직임과 죽음에 자유라는 무형의 가치를 투영함으로써 1970년대 당시의 군사정권에 맞서 자유를 갈망하던 문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자유를 갈망하던 계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유를 향한 투쟁이 결국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기에 단념해야 한다는 시인의 가치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이성주의 합리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무조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성이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나뉘는데, 순수이성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도덕법칙을 찾아내는 이성이고, 실천이성은 순수이성이 찾아낸 도덕법칙을 인간이 행위 하도록 명령하는 이성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상자 및 피해를 유발한 현대의 세계대전은 이러한 인간의 자율적 이성 능력에 의심을 품게 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던 개인윤리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는 그의 사회정의 이론에서 이를 설명한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인간이 왜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기심의 충동은 대단히 강한 것이어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이지만 이성을 발휘하여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뿐,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이성이 집단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집단의 지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집단의 이기심을 제어하기보다는 그러한 이기심을 오히려 더욱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개개인은 도덕적 이성 능력이 있지만, 집단에 속하는 순간 그러한 이성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집단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단은 없는 것일까? 그는 어떠한 집단의 이기심을 폭력 및 정치적 수단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력 역시 잘못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의 사용은 인간의 도덕적 이성 능력인 선의지의 통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력은 개인의 도덕적 설득과 같은 비폭력적 수단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강제력이라는 새로운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인 이성, 즉 선의지와 조화를 꾀한 것이다.

(나)

도덕성의 토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종교는 신을 기반으로 사상을 전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에 대한 논의는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하였고, 이를 근거 삼아 신학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실증 불가능함”에 있다고 말한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 모두가 인정할만한 객관적 신의 실체가 확인 가능해야 할 텐데, 이는 실증이 불가능하기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못하며 곧 신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는 일부 심리학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 존재는 자신의 현실과 불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망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기 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신이 존재함을 현실 세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의 자연물에 나타나는 성스러움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 수 [A]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현실세계인 속세에서 엄청나게 큰 폭포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대자연의 압도감과 같은 신이 속세에 나타나 드러나는 성스러움이 곧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한다.

한편 우주의 기원 및 천체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 역시 신이 존재함을 믿는다.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물리학을 토대로 한다. 물리학을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법칙이라기엔 그 수준이 너무나도 정교하였다. 또한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되는데, 이러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요소들 역시, 마치 짜인 듯 완벽히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연의 우연한 발생으로 보는 것보다, 신이 만든 일련의 체계와 법칙으로 보는 것이다.

*형이상학: 경험을 초월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이르는 말.

5.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계획: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전개 방식을 예측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결과
○(가)에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이 나타나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①
○(나)에는 대립되는 이론에 대하여 각각 두 가지 입장을 서술할 것이다.	예측과 같음.....②
○(가)에는 (나)와 달리 단어의 정의를 통해 사상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예측과 같음.....③
○(나)에는 (가)와 달리 첫 문단에서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관한 파생 이론을 나열 할 것이다.	예측과 다름.....④
○(가)와 (나) 둘 다 필자의 사견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특정 이론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이다.	예측과 다름.....⑤

6.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군.
- ②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현실에서 성립이 불가하므로 형이상학적 논증을 통해 명제의 성립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 ③ 심리학자들은 신이란 사람이 자신의 현실과 불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겠군.
- ④ 엘리아데는 현실 세계에서 성스러움을 느꼈다면 이는 곧 신이 현실 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겠군.
- ⑤ 물리학의 짜인듯한 수식과 인과관계는, 천문학자들이 신이 존재함을 믿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7. (가)의 임마누엘 칸트에게 <보기>의 사르트르가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대의 세계대전은 반(反)이성주의 철학, 즉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실존주의 철학이란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① 인간의 이성이 찾아내는 보편적 도덕법칙은 인간의 도덕행위의 근간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자율적 행위가 아닌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만이 오직 도덕적임을 간과한다.
- ③ 이성의 도덕법칙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율적 삶을 간과한다.
- ④ 인간이 자율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⑤ 개인의 삶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8. 보기의 사례 중에서 (가)의 라인홀트 니부어의 주장을 강화할 만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자원봉사자들로 모인 집단이 자원봉사를 하기위한 장소를 임대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이를 저지한 시 공무원에게 항의하다가 결국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 ㄴ. 전국구로 퍼진 조직폭력배들이 동시에 집단 폭력을 이르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났다.
- ㄷ. 안전 규칙을 잘 따르던 관람객들이 공연이 시작하자 안전을 위해 쳐둔 펜스를 넘어가 결국 공연이 중단되었다.
- ㄹ. 근무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9. [A]에 나타난 엘리야데의 입장에 부합하는 갑~무의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휴일을 맞아 미술관에 놀러갔다가 화가 김아무개의 작품을 보고, 그의 미술 작품에 감동을 느껴 눈물을 흘렸다.
- ② 을은 공원의 나무에 비치는 햇빛을 보고 아름답게 빛나는 나뭇잎이 신의 성스러움이 현실세계의 자연물에 드러남을 체감했다.
- ③ 병은 고대의 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대한 조각상을 보고 신이 실존한다면 신은 어떤 모습일지 고찰했다.
- ④ 정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잘못된 인간을 벌하는 신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 ⑤ 무는 오리가 물 위에 뜨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주신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0. 다음은 한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오늘은 글 (가)와 (나)를 읽고, 다큐멘터리로 만들 때, 그에 들어갈 장면들을 구상해보시다. 본인의 의견을 발표해보세요.

- ① 서연: (가)를 주제로 다큐멘터를 만들 때, 일반적 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적 법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던 한 사람이 전쟁에 참가하여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면, 어떠한 사회적 흐름이 라인홀트 니부어의 이론의 단초가 되었는지를 쉽게 전달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 ② 진수: (가)를 주제로 다큐멘터를 만들 때, 다른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 조건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라인홀트 니부어의 핵심 주장을 쉽게 전달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 ③ 병건: (나)를 주제로 다큐멘터를 만들 때, 무신론자들이 신이 존재함을 믿는 종교시설 앞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시위하는 장면은, 무신론자들의 핵심 주장을 쉽게 전달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 ④ 재석: (나)를 주제로 다큐멘터를 만들 때, 어질러진 책상 위에서 물리학 혹은 천문학 서적을 읽던 학자들이 어느 순간 신이 존재함을 깨닫고 종교활동을 하는 장면은, 신이 존재함을 믿는 학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상황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 ⑤ 용진: (나)를 주제로 다큐멘터를 만들 때, 엘리야데의 서적에서 그가 신이 자연에 성스러움으로 드러난다고 언급한 특정 상황을 직접 촬영한다면, 시청자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주인공 '복녀'는 선비였다가 농민으로 전락한 집안의 딸이다. 그의 나이 15세에 동네 할아버지에게 팔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20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모여있다고 여겨지는 칠성문 밖 빈민굴에 정착한다.

기자묘 출발에 ㉠송충이가 풀었다. 그때, 평양루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오십 명쯤이었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넣고, 또 그렇게 하고, 그의 통은 잠깐 사이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삼십이전 썩의 품삯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엿새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나쁜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의 샅전보다 팔 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감독도 그들의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에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녀! 애 복녀!”

“왜 그럽네까?”

그는 약통과 집계를 놓고 뒤로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애, 너, 음... 데 뒤 좀 가보자.”

“뭘 하세요?”

㉡“글쎄, 가야...”

“가디요,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 있는 데로 고향쳤다.

“형님두 잡세다가래.”

“싫다 애.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겠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갭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녀 갔구나.”

뒤에서 이러한 조롱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갭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의 하는 짓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었다. 게다가 일 안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拍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는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중략부분의 줄거리] 고구마 밭에서 야밤에 감자를 훔치던 '복녀'는 밭의 주인인 중국인 '왕서방'에 걸리고, 이를 계기로 그에게 매춘을 하게 된다. '복녀'부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왕서방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복녀'는 결혼식날 밤 그의 집에 찾아간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 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집으로 가요.”

왕 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 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 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두,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우, 가자우.”

왕 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 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 하는 낫이 한 자루 들리어 있었다.

“이 되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다! 이놈아, 아이구 사람 죽이누나.”

그는 목을 놓고 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따른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 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리어 있던 낫은 어느덧 왕 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

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 의사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출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김동인, 「감자」-

11.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있다.
- ② ㉡: 상대방의 요구와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있다.
- ③ ㉢: 복녀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인물의 행위가 나타나있다.
- ④ ㉣: 복녀가 왕서방에게 위선을 그만 떨라고 보내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있다.
- ⑤ ㉤: 사건이 일어나는 주위의 장소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분위기를 대조함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강조하고 있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복녀가 의문을 갖는, ㉣은 새로운 갈등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② ㉠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은 복녀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소재이다.
- ③ ㉠은 복녀가 삶의 의욕을 투영하는, ㉣은 거래 주체들의 야망을 반영한 소재이다.
- ④ ㉠은 복녀의 절망감을 불러이르키는, ㉣은 복녀의 죽음의 비극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 ⑤ ㉠은 복녀가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는, ㉣은 복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덮기위한 소재이다.

13. <보기>의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세계 4대 비극 중 하나입니다. 희곡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국왕이었던 아버지를 권력에 눈이 먼 숙부에 의해 여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사가 밝혀집니다. 결국 주인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사망하는 비참한 결말은 왜 햄릿이 4대 비극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희곡 햄릿과 소설 감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① 두 글의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② 비극적 서사에 큰 작용을 하는 기제가 햄릿에서는 권력욕이고, 감자는 돈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 결국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은 두 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희곡 햄릿에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정사가 밝혀지고, 소설 감자에서는 사건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정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희곡 햄릿과 소설 감자 모두 주인공이 부정의하거나 비극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

14. 다음은 한 학교의 독서 후 연계학습의 일부이다.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한 모듬은?

- 연계학습 주제: 고전 읽기와 소설의 연계
- 연계학습 과제: 고전을 읽고, 고전의 필자가 소설의 주인공에게 할 수 있는 조언 작성해보기.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의로운 것을 위해서라면 현자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賢者)는 이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 (중략)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 (禮樂)이 세워지지 않는다.

*예악: 예의와 음악

-공자, 「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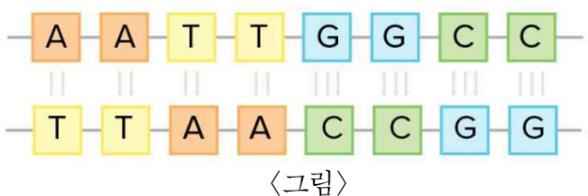
- 연계학습 결과
- ① [1모듬] “본인의 직업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직업인지 되 돌아보아라.”
- ② [2모듬] “욕구를 고려해 이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만한 직업을 선택하라.”

- ③ [3모둠] “음악은 시끄러우므로, 이를 최대한 저지할만한 직업을 가져라.”
- ④ [4모둠] “이름을 높이 세우고 명예를 좇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 ⑤ [5모둠] “모욕하며 밥과 국을 주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방역을 위해 빠르게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감염자들을 격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검사 방법인 항체 검사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몸이 만들어낸 항체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항체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주목을 받은 것이 PCR, 즉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한 검사였다.

PCR의 복제대상인 DNA는 염기인 티민(T),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으로 구성된 이중나선 구조이며, 각각은 A-T, G-C로 짝을 이루어 <그림>과 같이 상보적 결합을 한 상태이다. 각각의 염기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PCR에는 추가로 프라이머(primer), dNTP, Taq중합효소가 필요하다.



PCR은 DNA와 프라이머, dNTP, Taq중합효소가 한꺼번에 다량으로 들어 있는 시험관에서 이루어진다. PCR의 첫 단계인 변성은 시험관을 가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약 90도 이상 가열된 DNA는 가닥 사이 연결하는 힘이 약해져 두 가닥으로 분리가 된다. 이때 한 가닥의 DNA를 DNA 주형이라고 한다.

DNA가 두 가닥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약 50도 정도로 시험관의 온도를 낮추면 프라이머가 DNA 주형과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때 필요한 DNA만을 복제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는 이미 알고 있는 DNA의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또한 프라이머는 복제하고자 하는 표적 염기 서열 말단에 @붙는다. 즉, 프라이머는 PCR의 시작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결합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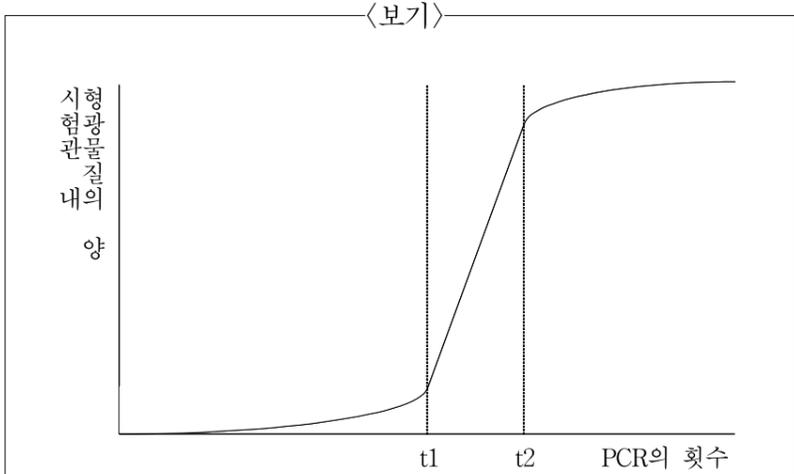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염기들을 결합하는 신장은 약 70도의 온도에서 실행된다. Taq중합효소는 dNTP가 DNA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를 시작점으로 하여 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dNTP란 뉴클레오타이드의 원형으로, T, A, G, C에 대응하여 dTTP, dATP, dGTP, dCGP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 dNTP는 DNA 주형에 대응하여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PCR을 1회 완료하면 한 번의 복제가 일어난다. 복제를 한 번 할 때마다 시험관 안의 DNA는 2배가 된다. 만약 시험관에 증폭하려 했던 DNA가 한 가닥이 있었다면, 복제가 끝난 후 DNA 가닥은 두 가닥이 된다.

그렇다면, PCR을 사용하여 어떻게 체내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검출 대상인 DNA가 증폭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PCR의 발전된 방법인 qPCR을 사용한다. PCR의 결과로 생성된 DNA에 특정한 방법을 이용하면 형광을 띌 수 있다. qPCR은 복제가 끝날때 마다 시험관 안의 형광물질을 모니터링하여 시각화한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형광물질의 양이 복제가 끝날수록 2배가 되어 어느 순간부터 급증하다가, 일정 횟수가 지나면 그 증가세도 둔해진다. 따라서 qPCR을 통해 복제하는 DNA가 바이러스의 DNA라면 시험관 내 형광물질의 증가를 보고 체내의 바이러스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1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PCR로 바이러스를 검사 한다면 체내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프라이머를 보아도 복제하고자 하는 DNA를 알 수 없다.
- ③ 다량의 DN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서 프라이머가 복제하려는 가닥이 아닌 다른 DNA 주형과 결합한다면, 엉뚱한 DNA 가닥이 복제될 수 있겠군.
- ④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 제작기술이 존재해야 한다.
- ⑤ dTTP는 DNA 주형의 A와, dGTP는 DNA 주형의 C와 결합한다.

16. <보기>는 qPCR을 활용하여 진행한 실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 그래프는 qPCR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DNA를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PCR의 실행 횟수가 높음을, 세로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시험관 내 형광물질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 ㄱ. t1과 t2 사이의 폭발적인 형광 물질의 증가는, PCR의 결과로 시험관 내의 DNA가 두 가닥으로 복제되기 때문이겠군.
- ㄴ. t1 이전의 시점에서 시험관에 검출하고자 하는 DNA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군.
- ㄷ. t2에서의 시험관 내 형광물질의 양이 1024이고 t1과 t2 사이의 PCR 실행 횟수가 9회라면, t1에서의 시험관 내 형광물질의 양은 1이었겠군.
- ㄹ. t2 이후의 시기에서는 이미 시험관 내에 형광물질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PCR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CR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시험관 내의 DNA 양은 늘어나며, 프라이머의 양은 (㉠), dNTP의 양은 (㉡). 만약 DNA

AAA
TTT

를 3번 복제하고 싶다면, 시험관 안의 dTTP의 개수는 최소한 (㉢)개가 되어야한다.

- | | | | |
|---|------|------|----|
| | ㉠ | ㉡ | ㉢ |
| ① | 감소하고 | 감소한다 | 21 |
| ② | 감소하고 | 감소한다 | 12 |
| ③ | 감소하고 | 증가한다 | 21 |
| ④ | 증가하고 | 증가한다 | 12 |
| ⑤ | 증가하고 | 감소한다 | 21 |

18.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한 탐구과제이다. 탐구과제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과제]
PCR 과정을 응용한 DNA 주형과 프라이머 염기서열 추론.

[실험 조건]

○복제하려는 DNA 주형은 다음과 같다.



- PCR의 결합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은 TTT?이며, 시험관 안에 dNTP는 충분히 들어있다. (단, 프라이머는 오직 티민(T) 혹은 아데닌(A)으로만 이루어져있다.)
- ㉠과 ㉡의 아데닌(A)의 개수의 합은 4개이다.
- ㉠과 ㉢의 아데닌(A) 개수의 합에서 ㉡의 아데닌(A) 개수를 뺀 값은 5이다.

- ①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은 TTTA이다.
- ② 프라이머는 ㉠에 결합한다.
- ③ dNTP는 B에서 A방향으로 결합한다.
- ④ ㉠의 아데닌(A)의 개수에서 ㉡의 아데닌(A)의 개수를 뺀 값은 0이다.
- ⑤ DNA 주형 전체의 염기서열은 알 수 없다.

19. ㉠이 윗글과 가장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 문장은?

- ① 철수와 영희는 항상 붙어다닌다.
- ② 하루 종일 일에 붙어있으니 머리가 아프다.
- ③ 달팽이가 비온 후 나뭇잎에 붙어있었다.
- ④ 그는 친신만고 끝에 사법고시에 붙었다.
- ⑤ 침대에 붙어 온 이불이 꽤 쓸만하다.